

# 한미 경영권 분쟁, 장·차남이 이겼다... 'OCI 통합' 급제동

##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임종윤 등 형제추천 이사 5명 선임  
OCI 그룹 통합 무산 시킬수도 있어  
모녀 측 후보 6명은 모두 선임실패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승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낮 12시 경기 화성에 위치한 라비돌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집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3시간 30분 넘게 지연됐다.

아울러 투표부터 개표까지 또 다시 3시간 넘게 걸린 끝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표대결에서 형제 측 승리를 이끌며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한 주주는 본인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해 2160명이다. 이들의 소유 주식 수는 5962만 4506주로 집계됐다.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88%에 해당해 이날 주총은 적법하게 결의



28일 경기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 오너가 장·차남 임종윤(왼쪽), 임종훈 형제가 주총장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6776만 3663주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 전 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주식 수는 3114만 7950주로 집계됐다. 이는 출석 의결권 대비 52.2%,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46%를 차지하는 수로 해당 안건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어 임종훈 전 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종훈 전 사장의 경우 출석 의결권 대비 51.8%,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45.6%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외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기타비상무이사 권규찬·배보경 선임의 건 ▲사외이사 사봉관 선임의 건도 각각 의결됐다.

반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후보 6명은 모두 선임 실패했다. 당초 모녀 측은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선임,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선임 등을 통해 한미와 OCI의 통합에 유리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총 하루 전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왔다.

기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

윤·임종훈 형제 측이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와 28.42%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서 형제 측을 처음 공개 지지해 형제 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은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어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2% 차이로 뒤집었다.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마지막 승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이 거론돼 왔는데,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잡은 것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된 것이다.

주총 직후 임종윤 전 사장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주 원팀"이라며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형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관계로 신성재 한미

사이언스 전무가 주총 의장을 맡았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당사 정권은 대표이사 유고 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성재 전무가 스스로를 '전무이사'로 소개하며 현장에서 논란이 일었다.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은 신성재 전무에게 '등기이사'인지를 확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주주도 "미등기이사는 대표이사 권한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며 "의장권에 대해서 지금 명시적으로 이의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계속되면 의장 불신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과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이 각각 추천한 신규 이사 후보들을 놓고 표대결 시작하기에 앞서 임종윤 전 사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만 소개된 것이다. 결국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 후보 설명은 임종윤 전 사장이 직접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47조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적극 지원

###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방안 발표

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등 도합 47조 원 규모의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

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페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대전 탐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이다.

SK온의 경우, 서산에 1조5000억 원 규

모의 이차전지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는 울산 미포산단의 페플라스틱 재활용공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